산업통상자원부 | 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4. 9. 24.(화) 06:00 < 9.24.(화) 석간 > 배포 2024. 9. 23.(월)

K-수출, 12개월 연속 플러스 기대

- 1~8월 수출 4,500억 불 기록, 9월에도 호실적 이어 나갈 전망
- 중동지역 분쟁 확대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
- 1차관, 수출동향 점검회의 주재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, 이하 산업부)는 박성택 1차관 주재로 9.24.(화) 오전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품목별 수출 여건을 점검하고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.

1~8월 누적 수출액은 전년 대비 +9.9% 증가한 4,500억 불을 기록하였다. 무역수지는 15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였으며, 누계로는 +303억 불 흑자로 작년 전체 적자 규모인 △103억 불의 세 배 수준을 달성하였다.

주요 품목별로는,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('24.1~8월 888억 불, 전년대비 +50%)를 포함한 정보기술(IT) 품목 수출이 올해 8월까지 전년 대비 +41% 증가한 1,193억 불을 기록하였다. 2위 품목인 자동차(474억 불, +1%)도 동기간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1년 만에 재경신하였다(기존 '23.1~8월, 468억 불).

박성택 1차관은 "우리 수출이 작년 10월 플러스 전환 이후 올해 8월까지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"고 평가하였다. 아울러 "9월 20일까지 누적 수출은 추석 연휴(16~18일)에 따른 조업일수 부족으로 전년 대비 △1.1% 감소하였으나,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은 +18.0% 증가하였다"고 강조하면서, "9월 전체적으로는 그간의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면서, '1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달성'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"고 밝혔다.

* 9월 1~20일 기준 조업일수 및 일평균 수출액:
('23년: 360억불) 15.5일, 23.2억불 → ('24년: 356억불, △1.1%) 13.0일 (△2.5일), 27.4억불 (+18.0%)

이어서 박차관은 "수출 호조세가 연말까지 지속되어 올해에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할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지원하겠다"고 하면서, "특히, △이스라엘-헤즈볼라 교전에 따른 중동 사태 격화, △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(현지시간 기준 9.18, △0.5%p) 등 우리 수출에 직·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해서는 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상황점검을 하겠다"고 밝혔으며, 특히, 최근 고조되고 있는 중동 분쟁과 관련하여 "현재까지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(LNG) 국내 도입, 우리

수출 물품의 선적 · 인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는 있으나, 향후 중동 정세 불안정성이 심화되면 국내 에너지 수급뿐만 아니라 우리 수출에 파급효과가 큰 유가, 물류비 등에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민관합동 '수출비상대책반'을 중심으로 보다 면밀히 중동 정세를 점검해 나가는 한편 시나리오별 비상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"이라고 강조하였다.

담당 부서	무역정책관 수출입과	책임자	과 장	이창훈	(044-203-4040)
		담당자	사무관	여수항	(044-203-4043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